

# 사양꿀 문제 언론 보도로 벌꿀 소비 저하 우려

- 5월 17일 소비자 고발 '벌꿀의 진실' 방영
- 매년 반복되는 사양꿀 문제 대책 시급
- 양봉협, 방송 계기로 정부에 벌꿀 등급화 적극 요청



KBS 2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벌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방송돼 양봉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 5분 소비자 고발에서는 백화점, 마트,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벌꿀 제품의 상당수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생산한 설탕꿀(방송표현)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중 판매제품(토종꿀 포함) 21개

를 수거하여 탄소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이 사양꿀로 밝혀졌다고 사양꿀 생산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방송은 각 지역 양봉장과 토종꿀 생산지를 찾아다니며 몰래 영상을 담고 인터뷰 내용을 교묘히 편집하여 소비자 불신을 고조시켰다.

양봉농가들은 고온과 잦은 비로 올해 꿀 생산량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제 꿀 판매마저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경남의 한 양봉가는 “방송이 나간 후 단 1개의 제품도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아카시아 꿀 생산시기에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양봉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갈 것을 알고 사전에 수차례 방송국을 찾아가는 등 방송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방송수위만 조절됐을 뿐 방영을 막지는 못했다”며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양꿀에 대한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고발이 방영된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특집방송이 타 방송에 배치돼 방송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자 고발 시청률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 이후 협회로 문의된 소비자 상담도 2~3건에 그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양봉**

